

THE CHURCH IN TORONTO

열 두 광주리 가득히 아침부흥 제 23 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빛비침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세가지 조건

2008년 7월 21일 ~ 8월 2일

제 1 부: 성경 말씀과 찬송

찬송: 583, -, 333, 308 (영 806, 1012, 437, 405)

성경: 아가서 1-8장

제 2 부: 계시와 진리를 위한 아침부흥

제 23 주 :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빛비침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세가지 조건

☞ ☞ ☞ ☞ ☞ 월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히브리서 4:12

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명확

그리스도인 중 문제가 아주 많은 사람이 많이 있다. 만약 그러한 문제들이 밖의 문제뿐이라면 그다지 중하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이 그의 속에 어둠과 분명치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주의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영적인 과정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필요함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어둠과 분명치 않음 속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다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와 어둠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속이 분명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기로 하자.

히브리서 4: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말씀한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올 때 영에서 나온 것과 혼에서 나온 것을 분별함을 말한다. 이러한 분별은 자기 속을 들여다봄으로 알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문제가 생기고 어두워진다. 한 문제가 열 문제로, 열 문제가 백가지 문제로 계속 생겨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는 스스로

물어볼 필요도 없다. 자기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분명하고, 아주 분명하다. 예를 들어 오늘 당신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아주 좋은 말을 했으나 말한 후에 속이 답답할 수 있다. 말의 의도는 다 좋았지만 속에서는 좋지 않다. 한 시간이 지난 후 또 한 형제를 만나 도움을 주는 말을 많이 했다. 이번에는 속에 통쾌하고 부담을 털어놓았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느낌이 있다. 전의 말과 별 차이가 없으나 속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이 내적 분별은 어떤 것이 틀렸고 어떤 것이 옳은지를 분명히 알려 준다. 그 양자 사이의 간격은 머리카락 둘 간격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겉으로는 비슷하지만 속에서는 차이가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영과 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속에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없다.

☞ ☞ ☞ ☞ ☞ 화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시편 119:130

130.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함

당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비취어 분명해지고 확신을 갖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성경만이 아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을 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산 말씀만이 쓸모 있고 당신의 영과 혼은 쪼갬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영에 속한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혼에 속한 것인지를 책을 읽어서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책이 말한 대로 행하더라도 결과는 여전히 혼에 속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 들어가서 빛을 비출 때에는 혼과 영을 나눠 관절과 골수가 보이게 되므로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내적인 앎으로 알게 된다. 이러한 사람은 속에 빛이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물어볼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주를 위하고 있는지를 자기를 위하고 있는지, 그 일이 주의 뜻인지 자기의 뜻이지를 계속 물어본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생각과 뜻이 쉽게 우리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자기 뜻과 주장을 분별하기가 가장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며 우리 마음 속의 생각과 주장을 밝혀 분별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이 편벽된 것이고, 실제적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것이고, 그 생각이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보게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속에서 보게 되며 분명해진다. 자신을 분석하는 것은 우

리에게 빛을 주지 못하고 자신을 속게 할 따름이다. 우리가 자신을 분석할 수록 속게 된다. 그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보게 되고 자신의 생각과 주장까지도 밝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물어볼 필요가 없다. 형제 자매여, 당신 속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비추게 한다면 속임을 당하는데 이르지 않을 것이다.

☞ ☞ ☞ ☞ ☞ **수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요한복음 1:4**

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 **요한복음 8:12**

12.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양심과 생명**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양심을 근거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사람의 양심은 생명보다 깊은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매우 낮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많은 때에 양심은 지나칠 수 있으나 생명은 지나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경우 우리는 어떤 일에 부딪혀 보고, 그 일을 마친 후에 양심이 평안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편치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함을 구한다. 그러므로 일을 마친 후에야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빛을 발하는 생명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부터 당신 속에서 분명하게 해준다. 우리 속에서 빛을 발하여 영과 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당신이 영에 부딪힐 때에는 그것이 영임을 느끼게 되며, 혼에 부딪힐 때에는 그것이 혼임을 느끼게 된다. 당신이 부딪칠 때 즉시 알게 되며, 매우 분명히 알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 안에서 빛을 발하여 당신으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한다. 이 말씀은 산 말씀이요, 운동력 있는 말씀이다. 이것은 밖의 말씀이 아니라 안의 말씀이다. 밖에서 한 일로 영과 혼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분명해져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게 되며 우리가 갈 길을 실제적으로 알게 된다.

☞ ☞ ☞ ☞ ☞ **목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아가서 3:1下

1. 내가 ...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 아가서 4:9中

9. ...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 ... 으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과부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는 과부의 마음을 갖고 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세상이 사랑할만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해서가 아니라, 세상과 세상의 욕망이 지나가 버릴 것이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세상은 사랑할만 하다고 말하겠다. 그 속에 있는 문제들도 사물도 사람들도 사랑할만 하다. 비록 성경이 육십 육 권이 있지만, 오직 한 책, 전도서만이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헛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박히셨고, 그래서 그의 마음이 과부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있는 곳이 사랑스럽게 된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있는 곳이 천국이다. 주께서 더이상 여기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과부의 마음이다. 이 세상은 나에게서 텅빈 곳이다. 따라서 세상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끌리지 않는 것은 그것이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를 안락하게하고 즐겁게 하지만, 만약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 이끌린다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주께서 여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세상은 비탄스러운 것이다.

나는 수 많은 군중 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혼자임을 느낀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한 기억으로 인하여 사회에서 멀리 떨어져 혼자 있을 때라고 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내 속에서 타오르고 있다. 내가 바닷가를 거닐면서 부서지는 파도의 거품을 바라보며 큰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주께서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혼자이거나 고립되었다거나 혹은 외롭다고 느끼지 않는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유혹하지만, 여러분이 주님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들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 ☎ ☎ ☎ ☎ **금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로마서 7:4

4.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 **고린도전서 6:17, 19-20**

17.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19.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20.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남편이 있는 여인과 같은 그리스도인**

성경은 우리가 과부라고 말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 ... 과부가 된다는 것은 남편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다는 의미이지만, 한편으로 여인은 남편과 의지할 곳이 있다는 의미이다. 누가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것은 남편이지 아내가 아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것을 아는가? 우리의 모든 필요는 전적으로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된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부터 얻기 때문에 이 달에 필요한 공급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 계획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의 성질이 나쁠 수도 있다. 자만스러울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일을 하는데 있어서 무기력하다.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성경 읽기가 맛없어지는 것을 발견한다.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그리스도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세상에는 한가지 상식이 있다. 처녀가 결혼하자마자 즉시로 남편의 이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보물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 「나의 이름으로,」 이 구절은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을 내포한다. 『무엇이든지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 나의 이름으로 그들은 악한자들을 내어 쫓을 것이다. ... 아픈자에게 기름으로 기름부으며 나의 이름으로 그들을 치료하라 ... 나의 이름으로 죄들을 용서하라 ... 나의 이름으로 전하라.』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누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가? ...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께 속해 있으며 따라서 그분이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사람들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한을 가졌음을 보기 바란다. 어느날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어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것이 되었으며,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우리가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분과 함께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다.

☞ ☞ ☞ ☞ ☞ **토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고린도후서 11:2-3**

- 2.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도
- 3.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케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기다리는 처녀와 같은 그리스도인**

성경은 세상에 대한 과부의 위치를 가진 것과 그리스도의 풍성과 관련하여 여인의 위치에 있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처녀임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을 순결하게 지켜야함을 말해주고 있다.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질투 하노니』 라고 말했다. 그가 뜻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질투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며, 아무도 여러분을 사로잡거나 붙잡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나의 친구가 누군가와 약혼하였는데, 그가 멀리 가 있는 동안 그의 약혼자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 내 친구 때문에, 그녀가 그를 그렇게 다루어서 안 되는 이유로 나의 질투심이 솟았다. 나는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사람에 대하여 질투하고 있다.

바울은 뱀이 간교하게 하와를 피어내었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각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손대지 않은 흠없는 사랑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함과 단순한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그의 생각 안에 그리스도를 갖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자신의 즐거움만을 갖고 있다면, 그의 주님은 기쁘시지 않을 것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말해야 한다. 『오, 주여! 나는 당신 것입니다. 나의 옷이 깨끗하고, 나

의 마음이 청결하며 나의 생각이 정결하며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깨끗하게 지켜지기를 기도합니다. 오, 솔로몬이 “내 누이, 내 정혼자는 둘러싸인 동산이요, 단힌 옹달샘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노래한 것과같이, 아무도 나를 만질 수 없게 해야 합니다.(아가서 4:12)』 왜 계속해서 ‘둘러싸인’, ‘단힌’, ‘봉한’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아무도 나의 정원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열려있기 때문이다. 아무도 그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나에게서 물을 가져갈 수 없다. 나의 샘과 분수는 모두 주님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매일 매일 우리는 그와 같은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으며, 아무도 나를 만질 수 없다. 바울은,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갈 6:17)고 말했다. 오,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으므로 아무도 나를 괴롭게 말라!

◆ 추구 자료 ◆

(주) 인용된 내용은 워치만 니의 『열 두 광주리 가득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제 3 부: GTA 권속 교통

1. 기도의 부담

1. 노동절 특별집회가 미국 오하이오 주의 콜럼부스에 있는 DoubleTree Hotel 에서 8월 29일부터 열립니다. 주님의 축복과 풍성이 오대호 주변의 교회들이 일년에 한번 모이는 영어와 중국어 집회에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1. Gospel Odyssey가 미시간 주의 앤아버(Ann Arbor) 시에서 70 여명의 청년들이 참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토론토 지역에서는 20 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25,000 여장의 전단이 배포되었습니다. 주님의 축복과 참가한 모든 자들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바라며, 그 도시에 전해진 복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복음의 부담이 더욱더 녹아들기를 기도합니다.

【집회 시간 및 집회소 안내】

Lord's Table	All Halls	Sunday, 10:00 AM	Sheppard Hall	671 Sheppard Ave. E., Toronto, ON M2K 1B6 (416) 221-7610
Young People	Sheppard	Saturday, 7:30 PM	Cecil Hall	24 Cecil St., Toronto, ON M5T 1N2 (416) 977-5888
College	Cecil	Friday, 7:30 PM	Greina Hall	7 Greina Ave., Toronto, ON M4A 2H5 (416) 757-7117
Grade 6	Greina	Saturday, 7:00 PM	자비집회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한국어 자비 집회)
Prayer Meeting	Sheppard/Greina	Tuesday, 7:30 PM	가정 집회 1	매주 수요일, 오후 6:00시 (한국어 가정 집회 1)
	Cecil	Tuesday, 7:00 PM	가정 집회 2	매주 목요일, 오후 6:00시 (한국어 가정 집회 2)
Web Page	www.churchintoronto.org		Web Page2	www.thechurchintoronto.ca

(이 아침부흥지는 영어 아침 부흥지를 번역한 것입니다. 영어 및 한글 아침 부흥지는 www.thechurchintoronto.ca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